

[웨비나] 코로나19,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

현재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

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
이동근 활동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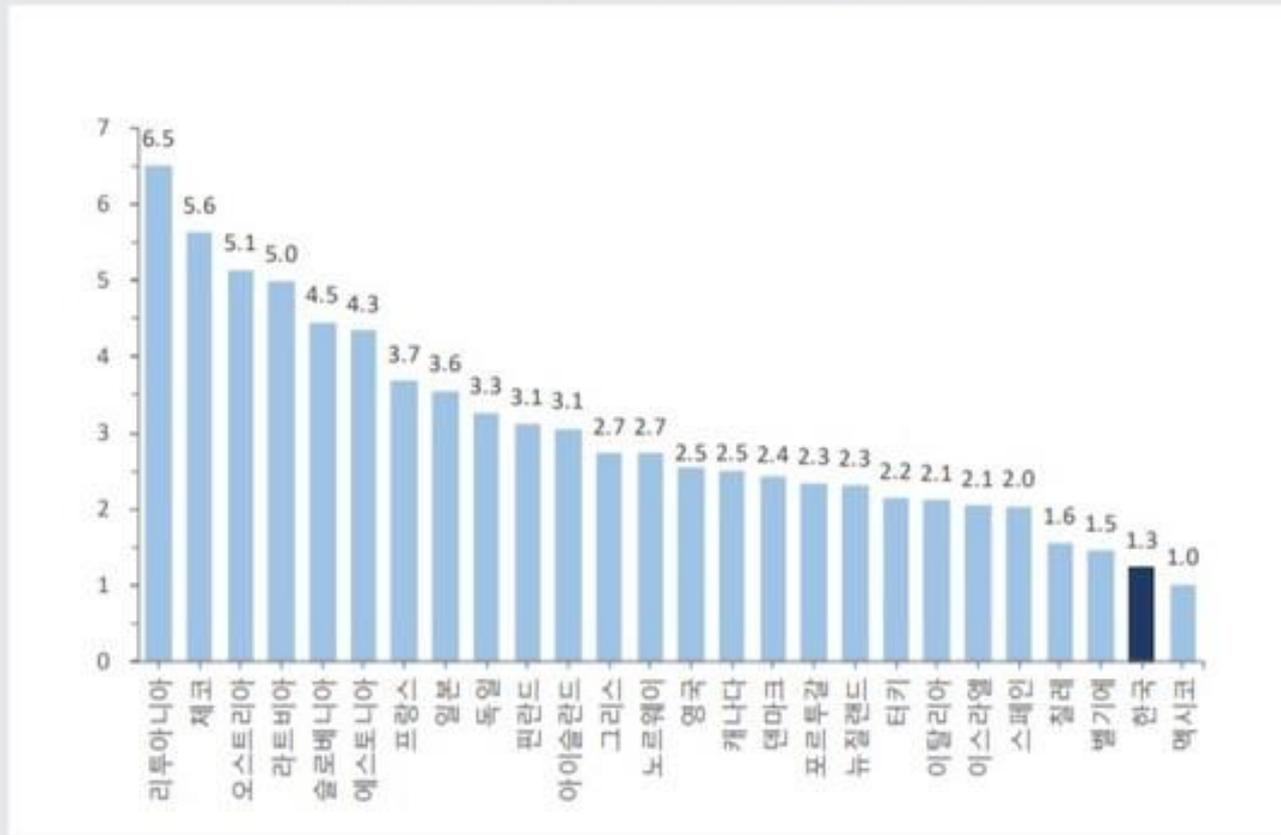


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

건강한 약사, 건강한 주민, 건강한 사회

1 |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 문제

[그림 2] 인구 천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(2017년)



자료: OECD Statistics. (2020. 3. 5.). Health Care Resources. https://stats.oecd.org/Index.aspx?DataSetCode=HEALTH_REAC에서 2020. 3. 5. 인출하여 도식화함.

- 코로나19 대응에서 한국의 최대 약점은 공공의료기관 병상이 부족한 것임.
- 대구에서 코로나19 대응에서의 실패도 공공병상이 부족했기 때문
- 지난 6월 25일부터 코로나 환자의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퇴원기준을 완화

2 | 코로나19의 대응방법 중 하나, 렘데시비르 사용

-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로 효과가 입증받고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는 렘데시비르
- 지난 NIH 주관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확인됨.
- 연구결과, 렘데시비르 사용 환자들이 위약 투여 환자보다 30% 더 빨리 회복함

Table 2. Outcomes Overall and According to Score on the Ordinal Scale in the Intention-to-Treat Population.*

	Overall [‡]	
	Remdesivir (N=538)	Placebo (N=521)
Recovery		
No. of recoveries	334	273
Median time to recovery (95% CI) — days	11 (9–12)	15 (13–19)
Rate ratio (95% CI) [†]	1.32 (1.12–1.55 [P<0.001])	

3 | 한국과 외국의 렘데시비르 사용 지침 비교

<p>미국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소공급이 필요하지만 기계적 환기가 아닌 입원환자에게 우선함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➢ 산소포화도 $\leq 94\%$ 또는 보충산소 필요 입원환자에게 5일간 복용 권고 ➢ ECMO나 기계적 환기도 추천 • 5일간 임상적 개선을 보이지 않은 환자는 치료기간을 10일까지 연장 • 경증이나 중등도 환자도 추천한다.
<p>유럽 영국 호주</p>	<p>유럽(EMA): 산소공급을 요구하는 폐렴을 가진 성인이나 청소년</p> <p>영국: 12세이상 40kg이상의 중증환자 [중증환자는 Room air PaO₂(산소포화도) $\leq 94\%$이거나 보조산소가 필요하거나 비침습적, 침습적 인공호흡 또는 ECMO가 필요한 환자]</p> <p>호주: 12세 이상이고 40kg이상인면서, 산소포화도가 94% 이하 이거나 산소 지원을 받는 환자</p>

3 | 한국과 외국의 렘데시비르 사용 지침 비교

-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렘데시비르 투약대상자 관련 지침

◆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로서,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 치료가 필요한 환자

※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

1. CXR(흉부엑스선) 또는 CT상 폐렴 소견
2. Room air PaO₂(산소포화도) ≤ 94%
3. 산소 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(Low flow, High flow, 기계호흡, ECMO)
4. 증상 발생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환자

◆ 용량 및 투여기간

- 5일(6바이알) 투여 원칙(필요시 5일 연장)으로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

- 7월 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힌 1차 치료대상자는 33명이었음. 당시 확진자 중 0.26%에 해당하는 수치임. (7월 1일 0시 기준 치료 확진자 12,850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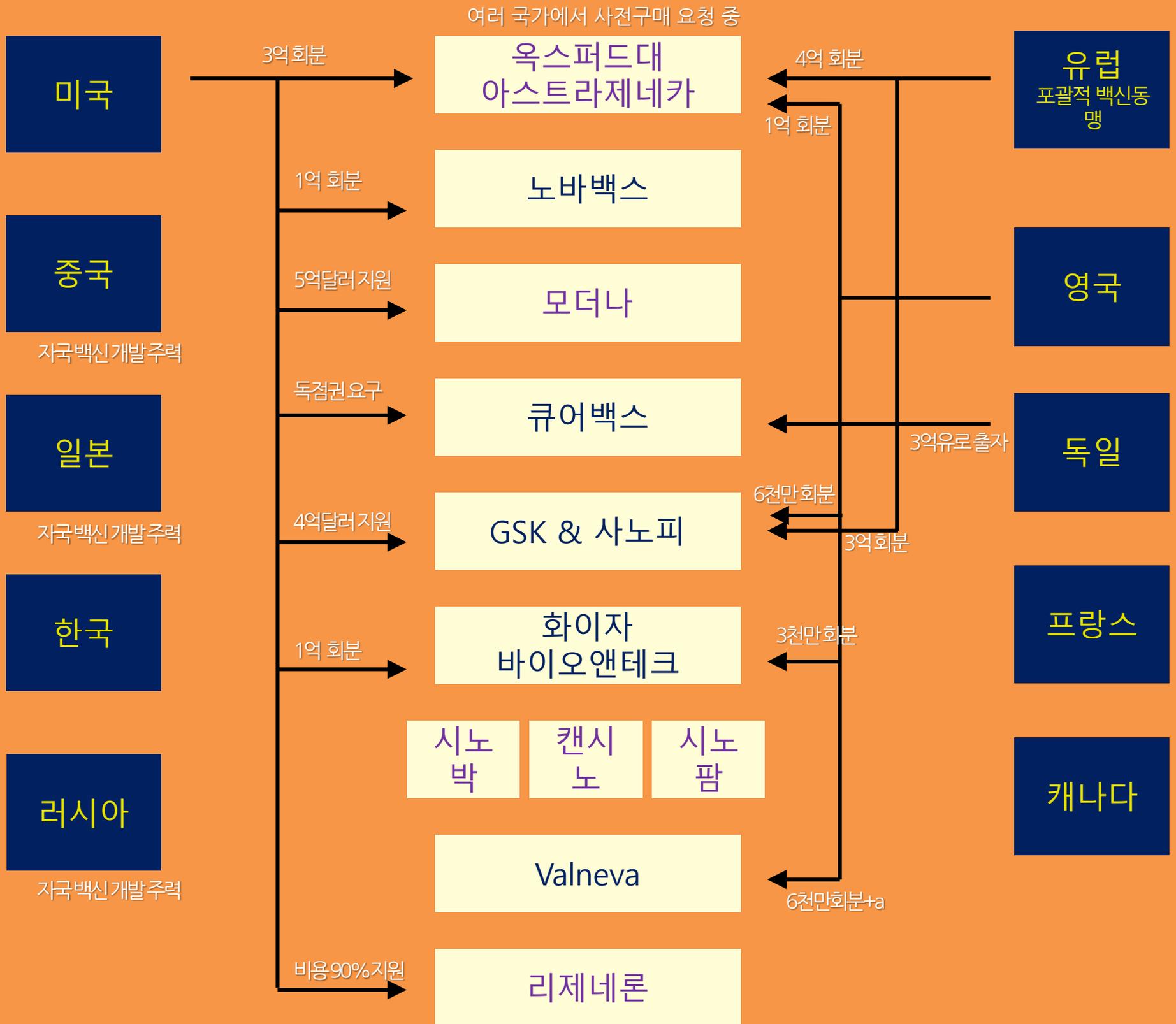
4 |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치료제의 적극적 사용

- 전염병을 치료할 병상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, 사망률을 개선하지 못하더라도, 치료기간 단축은 중요한 치료 이익
- 코로나19로 현재 과중되고 있는 치료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치료제 사용은 너무 제한적임.

5 |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정부의 역할

- 여러 민간 단체와 WHO는 치료제 및 백신의 공공재이며,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옴.
- 제약회사들은 현재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관련 개발시장에서 막대한 재정적 규제적 특혜를 누리고 있음.
- 아직 치료제와 백신의 확보는 제약주권, 자국 이기주의 관점에서 이뤄짐.

코로나19 유망 백신 현황



5 |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정부의 역할

-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범정부 대책위 등에서 해외 개발된 효과적인 치료제의 강제실시를 사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.
-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내에 렘데시비르와 같은 치료제나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.
- 렘데시비르만 고려해도 특정국가에서의 공급 독점과 치료제 가격 논란으로 치료제 사용이 불가능한 국가들이 많음.
- 생산역량 갖춰진 한국이 국제적 공조하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필요함.